

# ‘F학점 국감’ 마감 ... 이전 입법·예산 전쟁

### 김재수 해임안→반쪽국감→미르공방 ... 민생 실종

### 막말·고소 고발 ‘막장드라마’에 증인들은 ‘모르쇠’

### 광주·전남 의원들도 존재감 부족 ... “기대이하” 평가

제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14일 법사위와 정무위를 제외한 11개 상임위원회가 종합감사를 마치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성적표는 참담한 그 자체다. 국감 시작 직전 터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로 새누리당이 국감 참여를 거부하면서 일주일동안 파행으로 얼룩지더니 정상화 이후에도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 간의 정쟁과 힘겨루기로 민생은 실종됐다는 평가다.

이를 반영하듯, 시민단체 모임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에 ‘F학점’을 줬다. 모니터단이 활동을 시작한 15대 국회 말 이래 18년 만에 준 최악의 점수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도 기대 이하였다는 평가다. 비교적 성실하게 임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 성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역대 최악 국감=20대 첫 국정감사는 출발부터 불안했다. 국감 시작 직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임안 정국’이 국회를 대혼란에 빠뜨렸다.

새누리당이 국감을 전면 보이콧(거부)한데 이어 이정현 대표의 ‘단식’까지 단행, 여야의 정면충돌로 국감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국감’으로 전락했다.

새누리당이 일주일 만에 ‘회군’을 결정하면서 국감은 정상화됐지만 정쟁만 난무했고 민생은 실종됐다. 피감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정책 질의보다는 정권 수뇌부를 겨냥한 의혹 공세에 열을 올린 야당과, 이를 덮어놓고 방어하는 데 급급한 여당이 빛은 ‘합작품’이다.

심각한 경제 위기와 청년 실업, 주거 문제 등의 민생 현안은 외면됐다. 경쟁적 막말과 무분별한 폭로, 윤리위 제소, 고소·고발 등 과거와 같은 ‘막장 드라마’와 증인들의 ‘모르쇠’ 답변도 이어졌다.

이번 주 운영위, 법사위 국감이 완전히 끝나면 입법·예산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여권은 올해 정기국회가 국정 핵심과제를 담은 각종 법률안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만큼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

반면, 야권은 대기업을 겨냥한 법인세법 인상,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을 연장, 누리과정의 지방재정교부금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예산 심사 과정의 결정적 열쇠를 지닌 예결특위 위원장은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되면서 야당이 차지했다. 여기에 예산 통과와 함께 수반될 예산부수법안 지정과 직권상정 권한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쥐고 있는 상황이어서 벌써부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초라한 성적표=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국감 성적표도 신통치 않다. 기대를 모았던 조선 의원들은 경험과 투지 부족 등으로 존재감을 과시하지 못했다. 중진 의원들도 평년작 수준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너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중진 가운데서는 국방위의 김동철 의원이 그래도 체면을 세웠다든 평가다. 김 의원은 4선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투지를 보이며 국방위를 뒤흔들었다. 육군 인사의 난맥상을 신랄하게 비판하는가 하면 군의 인권 실태의 문제점을 파헤쳤다.

여기에 장성급 인사에서의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을 질타하는가 하면 군 공학 이전에서 공군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군인공제회의 난맥상을 고발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조선 의원들 가운데서는 송기석, 최경환, 정인화 의원 등이 분투했다는 평가다. 교문위의 송 의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해 제2의 일해재단으로 규정하며 주목을 받았으며 문제부 산하기관과 소관기관의 부적절한 지원 등을 밝혀냈다. 여기에 김영란 법으로 조기 취업한 졸업반 대학생들이 학점 취득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육 부로부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전남의 정인화 의원은 쌀 값 문제의 심각성과 광양항 활성화 대책, 기후 변화 문제, 수산자원 확대 등에 대해 정책적 접근을 이뤄내 상당한 내공을 보였다.

전남의 정인화 의원은 쌀 값 문제의 심각성과 광양항 활성화 대책, 기후 변화 문제, 수산자원 확대 등에 대해 정책적 접근을 이뤄내 상당한 내공을 보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선교는 어디가고 ...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종합감사에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한선교 의원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을 향한 발언이 논란이 되며 이날 국감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교문위, 최순실 딸 대입특혜 의혹 불꽃 공방

### 미방위 “미래부, 차은택 임명 서류 왜 없나”

#### 국감현장

국회는 지난 14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한 13개 상임위원회에서 마무리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사실상의 국감 마지막 날이었지만 이날도 주요 상임위에서는 정권 실세 개입 논란과 맞물린 미르·K스포츠 재단의 모금 특혜 의혹과 농민운동가 백남기씨의 사인 및 부검 문제를 놓고 공방을 되풀이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최순실씨 딸의 대입특혜 의혹에 야당의 공세가 쏟아졌다.

더민주 안민석 의원은 “이화여대 측에서는 1987년 박모 학생을 승마특기생으로 뽑은 바가 있다면 정씨의 사례가 최초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박씨는 일반학생들과 함께 시험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대의 설명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역시 정씨가 학점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교수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교수가 학생인 정씨에게 ‘첨부 파일이 첨부’가 안됐다. 다시 보내주면 감사하겠다”며 민망할 정도로 사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정치공세가 지나치다면서 방어막을 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여당 교문위원들은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민주의 의혹 부풀리기가 도를 넘었다”며 “짜

맞추기를 하기 위해 국감 자료도 180도 뒤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미 쓴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의 실용성·안전성을 둘러싸고 질타가 이어졌다.

더민주 유승희 의원은 “한국·미국이 공동 연구하기로 한 파이로프로세싱은 일본 등에서 실제 ‘폐기 대상’ 대접을 받는 기술”이라며 “다들 경제성이나 안전성에 관해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는 기술을 한국만 엄청난 예산을 들이는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병길 의원은 내년 대전의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파이로프로세싱 1차 연구를 시작하는데, 맹목성의 방사성 기체가 나오게 돼 유독가스 포집 장치 등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권 실세’ 의혹에 휩싸인 CF감독 차은택씨가 미래부 1급 고위직에 임명된 배경을 둘러싸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더민주 신경진 의원은 “차씨의 임용과 관련해 미래부에 질의했더니 관련 서류가 하나도 없다고 들었다. 얼마나 ‘센’ 사람이 추천했길래 이렇게 일을 쉽게 한 것인가”고 따졌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도 “차씨 측근이 설립한 업체가 창조경제혁신센터 17곳의 웹사이트를 일괄 제작하기로 하고 3억4000만원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 이행을 못 하고 ‘떡튀’를 한 사례가 있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미르·K스포츠재단, 우병우 의혹 ‘충돌’ 불가피

### 21일 운영위 靑 비서실 국감 주목

20대 정기국회 첫 국정감사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운영위 국감은 13개 일반 상임위원회의 국감이 마무리된 후인 오는 20~21일에 열려 일정상으로는 ‘반외경기’에 가깝다. 그러나 미르·K스포츠재단 논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비리 의혹 등 굵직한 이슈가 맞물려 있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운영위는 오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21일에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상대로 각각 국감을 실시한다.

정치권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21일 국감이다. 야권으로부터 대기업들이 기부금을 모아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중범 정책조정수석과 우 수석이 모두 21일 운영위

국감의 증인이기 때문이다. 일단 여야는 우 수석의 증인출석 문제에서부터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의 증인출석과 관련, 청와대는 안 수석은 출석하겠지만 우 수석은 ‘관례에 따라’ 불출석할 것임을 시사한 상태다. 일단 국감이 출석하는 안 수석의 경우 재단설립 과정에서 외압행사 여부를 놓고 야당의 거센 추궁이 예상된다.

더욱이 이번 운영위 국감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으로서도 사활을 걸고 막을 것으로 보여 충돌 규모가 다른 상임위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르·K스포츠 재단 논란과 우 수석 비리 의혹을 둘러싼 야당의 칼끝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있는 만큼, 여당으로서의 방어에 실패할 경우 레임덕 가속화와 정국 주도력 상실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운영위와 함께 여성가족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국감도 각각 17일과 19일부터 실시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방향지시등 켜기! 깜빡깜빡~ 방향지시등을 켜면 행복이 켜집니다~

방향지시등은 상대 운전자에게 차량의 진행방향을 사전에 알려주어 원활한 교통흐름을 가능케하는 중요한 소통의 빛입니다. 우리의 작은 배려가 안전운행을 결정짓는다는 사실, 깜빡 잊지 마세요! TS

